## 1st Look

## **Exhibition**

4 February, 2016

## **EXHIBITION**

국제갤러리에서는 2016년 첫 번째 전시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명성의 현대미술가 장-미셸 오토니엘(Jean-Michel Othoniel)의 개인전 〈검은 연꽃(Black Lotus)〉를 개최한다. 파리 지하철 개통 100주년을 기념해 루브르박물관 역 입구에 설치한 왕관 모양의 조형물 '야행자들의 키오스크'(2000)로 명성을 떨친 그는 1980년대 후반 작품 활동을 시작해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존재의 상실과 부재, 신체와 정신의 상처를 다룬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그 후 본격적으로 유리의 양면성에 주목해 개인의 사적 공간과 내면을 표현해왔고, 역사와 자연의 조화, 과거와 현재의 공존 등으로 작품 세계를 점차 확장하며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했다. 그의 대표작인 유리조각 작품은 물론 석판화까지 포함한 신작 10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월 27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2-735-8449

